

사설

매듭 풀 선학원문제

조계종의 '뜨거운 감자' 선학원 문제가 마침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조계종을 위해서나 선학원을 위해서나 무척 값진 일이다. 조계종이 요구한 '조계종 종지종통 봉쇄'를 정관에 명시할 것,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덕망있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것, 조계종 승려가 선학원에 사찰등록을 할 경우 종단과 협의할 것 등을 선학원 측이 수용하고, 선학원이 요구한 소속 조계종 재직승들의 승적관계, 도제 교육문제, 선거직 중무직 제한 등 권리제한 해제를 조계종이 수용한 것은 모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같은 합의는 조계종의 중앙종회, 선학원의 이사회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현대사에서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양측 중 어느 쪽이라도 이 합의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행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선학원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뜻밖에도 만길을 우회해온 느낌이 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 측면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불일불이(不一不異)의 동체적 관계였다. 조계종이 비구승단으로서 출발한 거점이 바로 선학원이었고, 선학원은 조계종을 탄생시킨 모태로서 조계종 승려들에 의해 조직되고 발전해온 단체였다. 따라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불편할대야 불편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념문제보다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조계종이 갖은 분류로 내용을 겪는 사이 일부 세력 창건된 사찰은 재산보호 차원에서 종단보다는 선학원 등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일부 비조계종 사찰도

여기에 가세해 몸집이 불어난 선학원은 준종단(準宗團)의 위치에 서게 되자 차츰 종단과 무관한 행보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불화의 씨앗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조계종은 선학원이 법률적으로 종단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고, 선학원은 이미 설립초기와는 달리 변화된 법적 위상을 들어 조계종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서 대립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학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선학원이 종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했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불일불이의 동체적 관계라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에 조계종과 선학원이 지리한 대치를 끝내고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화합을 우선하는 승가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학원 문제 해결과정은 비록 먼길을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합은 자주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기해야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서로 대화를 계속 하려면 자기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일만 해도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징계를 하거나 분쟁을 선언했다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다행히 양측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원만한 화합을 이끌어낸 것은 거듭 칭찬하고 축하할 일이다. 비운 뒤에 더욱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측은 더욱 힘을 합쳐 불교발전 선도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경승포교 재도약 다짐”

전국 경승실장 회의 정례화 월간소식 ‘등불’ 발간 결의

경승단생 20년과 경승단 창립 13주년을 맞아 전·의경 포함 15만명에 달하는 경찰과 경찰가족 60만여명에 대한 포교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한불교경승단(총재 고산·조계종총무원장)은 22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99년 전국 지방경찰청 경승실장(지단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경승실장 회의의 정례화 하는 등 경승조직의 체계화 및 경찰포교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승단 총재 고산, 단장 정연(포교부장), 사무총장 현진(포교부장), 전국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및 지단장, 경찰대학, 경찰병원, 경찰종합행정학교 경승실장 등 경승단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승지도자대회 및 경승연수(9월23일경)와 전국 경승 7인법회(10월13일경) 개최, 경승령 개정안 확정, 경찰포교용 교양소식지

월간(등불)(가칭, 32쪽 분량으로 1만부 발행) 발간 등을 결의했다.

이날 확정된 경승령 개정안은 △경승단 사업 및 경승 활동과 관리에 관한 협의와 결의권을 갖는 '전국 경찰청 경승실장 회의'와 '지방 경승실장 회의'의 신설 △경승의 역할과 책임,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명기한 경승실 운영규정 명시 △매년 1월, 7월 및 재위축시 경승활동보고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회의는 경승령 개정을 통해 경승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조직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등 경찰 포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22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회의.

‘군법당 시주금 뇌물 판결’ 25개 단체 대책위 구성

공동변호인단·군법사 소환등 추진

불교계 25개 단체로 구성된 '김태복소장 군법당 건립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 범법고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위원장 현진·성공스님등 8명)가 구성됐다.

조계종 종교평화대책위원회, 예비역군법사단, 법조불교인회, 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정인연합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등 25개 단체 대표들은 23일 서울 종로구 회기동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위를 구성,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법당 건립 시주금이 재판의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향후 불자들의 순수한 보시에 대해 일반인의 불신을 갖도록 하는 행위"라면서 "군법당이 불교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김태복 소장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조불교인

“불교TV 정상화 종단차원 앞장” 조계종 btn특위 결의

조계종 btn특위(위원장 정효스님)는 21일 7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스님의 불교TV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천명 촉구 △태웅스님 주시 30억 원 무상증여건에 대한 진상 파악 △종단의 의사 결정 기능 강화위해 새 이사 추천 △특위 결의사항 총무회의에서 적극 수용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특위에서는 태웅스님에 대해 징계하지는 않되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불교TV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교TV회장 태웅스님이 약정서를 통해 30억원의 주식을 불교TV에 무상 증여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gkim@buddhopia.com)

회 소속 변호사들의 '소견서' 발표, 대규모 공동변호인단(100~150명) 구성, 고등군사법원 재판방청, 장관 면담 및 항의시위, 헌역군법사 소환 등 단계별로 강력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과 조계사신도회는 21일과 23일 각각 김태복 소장 선고공판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김태복 소장 사건은 군법당 건립을 뇌물수수 수단으로 왜곡한 군내외의 조직 불자들의 순수한 보시에 대해 일반인의 불신을 갖도록 하는 행위"라면서 "군법당이 불교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김태복 소장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총무원장 부존재소송 7월23일 다시 심리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영)는 25일 지난 3월 정회개혁회의 의장 정영스님이 제출한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7월23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10월초 서울-평양 ‘민족화합 종교축전’ 추진

KORP-평통 의견 모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는 22일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족화합을 위한 종교축전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KCRP 회장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박종 종교분과위원장 등 각 종교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정 신부(성공회대 총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종교축전을 개최해 민족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교축전 개최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나, 규모 및 북한 종교계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최 시기는 10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원총무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별도로 방문해 종교축전 개최를 협의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23일 열린 문화부장관 초청간담회.

“국민화합 불교계 노력에 감사”

문화부장관 교계지도자 초청간담서 밝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오후 12시 부임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태고종 총무원장 인국,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진각종 총무원장 성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스님 등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을 초청,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장관은 불교계가 지난 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국복법회를 잇달아 개최한데 이어, 최근 등·서화합을 위한 기

원법회를 여는 등 국민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산스님은 "정부의 문화재정 승격을 계기로 우리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사찰의 쾌적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태복 소장 군법당 건립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과 관련 정부의 공정한 종교정책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 7년 11월 17일

현대만평



실천하는 수행을...

737-8881

생활속의 삼매체험 선禪 수련회

참선생활운동 99전국 여름수련

1, 2차 - 전북 금산사 3차 - 제주 원명선원

내가 바르면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가 비뚤어지면 세상도 비뚤어 보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남도 속이는 사람이고, 내가 정직하면 남도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남이 그릇되게 보이는 것은 내가 그릇된 때문이며,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모두 고치고 비뚤어진 세상을 다 바꾸려면 요람하여 시끄럽기만 할 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과 비뚤린 마음을 바로 하면 세상이 모두 바로됩니다. 우리 각자 마음의 삼매를 닦아 나를 고치면 세상이 편케됩니다. 본래 번민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삽시다.

❖ 취지 : 내가 없이 사람이 실종된 맹목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이 과연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참선 생활 운동에서는 3박 4일의 수행중 누구나 곧바로 마음 자리를 닦아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깨달음의 삼매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련일정 :
1차 8월 2일 - 8월 5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2차 8월 7일 - 8월 10일 (3박4일) 200명 전북 금산사
3차 8월 13일 - 8월 16일 (3박4일) 50명 제주 원명선원

❖ 특징 : 1. 본 원의 수련은 통상 극기적인 수련이 아니며,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2. 수련후에 삼매를 체험할 수 있음.
3. 수련후 생활중에 삼매 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지도함

❖ 선착순마감 : 선착순으로 7월 10일까지, 마감후에는 현장에서는 접수안됨 (3차의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은 항공 이용시 예약을 곧바로 하여야함.)

조속히 접수후 안내를 받아야함. 항공 이용자는 가능하면 팩스로 속히 우송바람)

- ❖ 대상 : 일반인(고교생은 보호자 참석시 가능함) 65세 이하
- ❖ 자원봉사신청 : 매 차수별 7명내외 (회비없음)
- ❖ 회비 : 8만원 (온라인 능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20528 예금자 : 원명선원) ※입금후 반드시 담당자 통화요함. 접수자는 개별 통지 받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 신청서류 : 1. 이름(한자, 한글) 2. 주소 3. 전화(주택,직장,휴대전화) 4. 종교 5. 주민등록번호 6. 직업 -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를 지망차수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기재
- ❖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목연, 법문, 점검, 행선20-30분, 좌선10-20분, 예불, 선문독송, 염송
- ❖ 접수처 : 제주도 화북1동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 ☎ 064)755-3322 전송 : 064)755-8913

참선생활운동 · 한라산 원명선원